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40일간 입법예고 후 6~7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주 52시간제'를 유지 '월' '분기' '연' 단위 선택

현행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선택성을 강화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주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로 최대 12시간)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가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 양적 규제로 70년간 유지돼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 시점에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

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노사 합의를 거쳐 '월'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은 지키면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의무 휴식을 넣지 않으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하는 날을 줄여 실

제 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안식월 등 장기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자녀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고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 4일제, 주 4.5일제라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6일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드림노트북을 직접 전달받은 제주중앙중 1학년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꿈을 갖고 미래 설계하는데 도움 되길”

김광수 교육감 어제 제주중앙중서 신입생에게 '드림노트북' 전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이 6일부터 시작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중앙중학교를 방문해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일명 '드림노트북'을 직접 전달했다.

중학생 노트북 지원은 '1인 1스마트 기기 지원'을 통한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 등을 목적으로 2023학년도부터 8개 교육감 임기 동안 지속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추경에서 119억원을 확보했고 2024학년도 지원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도 128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노트북은 새 학기 중학교 1학년들에게 대어 방식으로 지원해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활용하게 된다. 올해 도내 중학교 신입생(2월 17일 기준 6867명) 대상 노트북 전달은 오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중학생 노트북 지원에 맞춰 전용 콜센터(1811-8290)를 갖추고 4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 관리를 담당할 지역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노트북 관리와 유해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운영, 분실이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레

외지 추적 등에 나선다. 최소 4년간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도교육청은 학교와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앙중을 찾은 자리에서 “드림노트북이 교과서·노트·연습장이자 가족들의 앨범이 되고, 영화관·미술관이 되고, 작곡·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전 세계 토대와 대화도 하는 등 여러분이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국가지원림 자연석 절도 일당 송치

경찰, 총 11명 입건... 특수절도 혐의 등 적용

속보=산림 자원 연구·보존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치고 연구용 나무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 절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 등 3명과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공범 7명에 대해 기

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 일당에게서 훔친 자연석을 매입했다가 되돌려 준 B씨에 대해선 훔친 것으로 의심돼 나중에 되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 10명은 형제 또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5~6일 사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실은 트럭을 몰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자물쇠를 걸고 침입해 높이 약 180cm에 이르는 자연석 1점을 훔치고 연구 목적의 나무 수십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연석을 캐고 옮길 중장비를 시험림에 반입하기 위해 출입구에서부터 범행 현장까지 300여m에 이르는 임시 진입로를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험림 내 연구용 나무 수십 그루를 훼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다세대주택 물탱크 입구 화재

다세대주택 물탱크실 입구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6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

난 5일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내도동의 다세대주택 지하 물탱크실 입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불은 소방당국 도착 전 자체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탱크실 입구 비가림막이 소실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수열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45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SNS에 후보 낙선 선거운동 선관위, 조합 임원 2명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음주운전 도의원 검찰 송치

제주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더불어민주당·아라동 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인 0.08% 이상이었다. 김도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겉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개)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만개)
하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야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20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 약 탐빛1호, 선경, 주문생산,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과 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010-8820-5769
010-3690-2453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한라봉	3~5년생
남진해	3~6년생
성전온주	3~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망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010-3690-2453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름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 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풍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풍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엽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엽나무 가시 없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초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드립니다.

010-3121-7676
053-856-1144